

# 기적의 사과처럼, 기적의 나무를



**김경호**  
(화수원 농장 관리이사)

기무라 아키노리씨의 사과, 혹은 기적의 사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농약도 비료도 안 쓰면서 가지가 휠 정도의 사과가 열리는 과수원이라니 상상이 가시는지요? 기무라씨가 재배하는 사과는 농약은 물론 어떤 비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그 열매는 오랫동안 보관해도 썩지를 않는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통의 과수원들은 잡초와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수원이나 조경수 재배 농가나 나무 주위의 잡초는 잔디처럼 바짝 깎아 깨끗한 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농사꾼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무들도 자신들을 돌봐주는 주인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들은 손질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욕을 할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기무라씨가 그랬습니다. 주변 사과 농가들의 눈총에는 아랑곳없이 전혀 제초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다른 농가와와는 달리 풀은 제멋대로 자라 메뚜기는 물론 온갖 야생의 생명체가 뛰어 다니는 그야말로 야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무라씨는 왜 이런 농사법을 고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방울의 농약도 쓰지 않고서 사과를 기르는 것,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2 보통의 조경수 농가나 농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제초 작업을 하고 돌아서면 여전히 풀은 그만큼 자라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 화수원 농장의 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농장을 관리하는 일은 참 힘에 벅찬 노릇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의 생장에 거름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냄새는 비록 지독하지만, 화학 비료에 비교하겠습니까? 땅이 거름을 잘 받아들여 나무뿌리에만 속속들이 공급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가의 희망과는 달리 잡초가 먼저 그 양분을 받아들여 어느새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거름을 주면서 웃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잡초 같은 놈은 농가에서 가장 심한 욱이라며 한바탕 웃고 넘어 갑니다.'

**3** 기무라씨는 사람들에게 아유를 받으면서도,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가난에 고통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과나무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사과 밭을 버려두고 있다고 했고, 잡초를 키운다고 했으며, 온갖 병충해를 만들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가 무농약 사과 재배에 도전한 것은 강한 신념이나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는, 농약도 비료도 전혀 안 쓰는 농업'이라는 자연 농법에 관한 책을 읽고 난 후부터 시작된 그의 사과 농사는 거의 10년간 고난과 질서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농가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그는 아무 결실도 얻지 못했으며, 밭은 점점 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약을 쓰지 않았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가 뿌리박고 있는 흙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기무라씨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밭줄을 하나 들고 숲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세상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었을 테지요. 아무도 없는 숲속의 한 나무에 밭줄을 매단 순간, 야생의 사과나무 한그루가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은 누가 농약을 치는 것도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니지....

기무라씨는 나무를 살펴보고 나무 주위의 흙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마냥 흙의 맛을 보았습니다.

결국 기무라씨의 사과나무는 9년 만에 하얀 꽃을 피워 냈습니다. 빗꽃이 아래로 피는 반면에 사과 꽃은 위로 피어난답니다. 사과나무 꽃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저 꽃을 피운 건 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사과나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저 사과나무를 돕는 것 정도.”

기무라씨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4**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곤잘 병에 걸린답니다. 사람들이 잘 눈치 채지 못하는 것은 나무 스스로 잘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장마는 나무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배수는 문제가 없는지, 벌레들은 나무에 해가 되지 않는지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장마를 견뎌낸 나무들은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들이고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기를 뿜어줍니다. 조경수 생산 농원의 고향은 이때부터가 절정입니다. 조경수의 유통과 관련된 판로의 개척은 생산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정보에 어두운 생산 농가는 중간 상인들에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조경수 유통 센터라고 하는 곳조차도 생산 농가나 농장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 값을 찾아주는 곳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무가 자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는 것은 느낄 사이도 없이 쑥쑥 자라기만 하지요. 잡초하나 없이 농장을 관리하시는 임재조경의 사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결벽에 가까운 정도로 체초제를 살포하고 예초기를 이용하여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농장 관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조경수 재배 농원들이 기무라씨를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수요자들의 발길이 잦기 때문에 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판매

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5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처음 먹어 보았습니다. 보내주세요.’

기무라씨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 수확한, 꺾보기에는 다소 볼품없었던 사과를 먹었던 손님 중 한명이 보낸 편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밭에 콩을 뿌리고, 나무에 식초를 뿌리는 동안에도 잡초와 벌레는 그 종류가 늘어만 갔습니다. 기무라씨는 사과나무의 상태와 밭의 모양을 그저 내버려두었던 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991년 태풍이 기무라씨의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과 농가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기무라씨의 사과나무들은 80% 이상의 열매가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 뿌리는 몇 배나 깊이 뻗어 있었고, 가지와 열매를 연결하는 꼭지는 훨씬 두껍고 단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무라씨의 사과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요는 무한한데, 공급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30년을 한 결같이 장인의 정신으로 가꾼 기무라씨의 사과나무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감동의 열매입니다.

## 6

부끄럽습니다. 조경수 생산 농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앞에 둔 가치는 경제성이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업종끼리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교류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유통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모 있는 활동은 대단위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무라씨는 성공한 농업인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꿈은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접했던 자연농법에의 꿈은 오늘의 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경수 생산 농원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사실 기적의 사과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집념의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겠지요. 이젠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양질의 조경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줄 의무가 있는 우리 생산 농원들도 ‘기적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김영사 출판/이시카와 다쿠지/기적의 사과